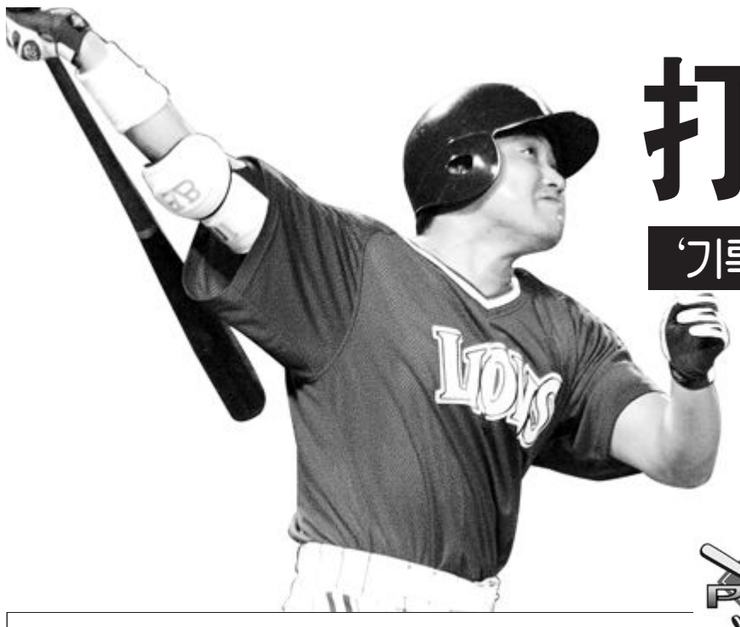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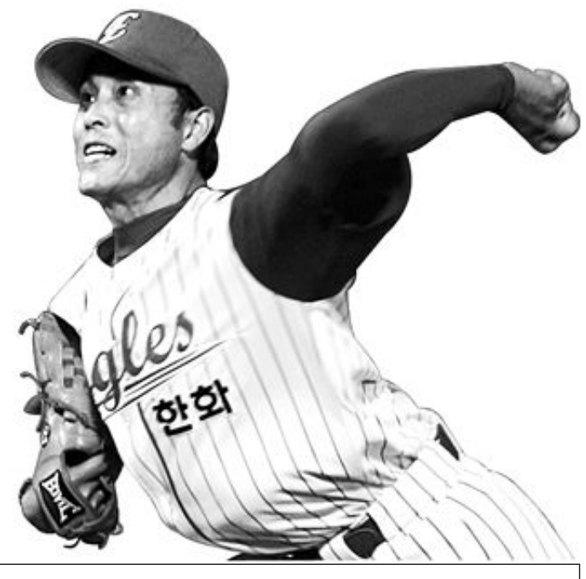


打 VS 投

'기록제조기' 대결



'기록 제조기' 양준혁(37·삼성)의 날카로운 창이 '마운드의 살아있는 전설' 송진우(40·한화)의 견고한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

삼성 PAVV 프로야구 2006

내일 KS 1차전

■ 삼성 양준혁 9년 연속 3할대

■ 한화 송진우 통산 201승 기록

21일부터 열릴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삼성-한화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에서 투타 맞대결을 벌일 양준혁과 송진우는 양팀의 '맏형'으로 어깨가 무겁다.

프로 14년차 양준혁은 삼성의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제패에 앞장서야 하고 18년차인 불혹의 송진우는 지난 1999년 이후 7년만의 우승에 디딤돌이 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이들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기록의 사나이'로 그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양준혁은 '스타 군단' 삼성 중심타선의 3번 타자로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고, 송진우는 우승의 분수령이 될 4차전 선발 출격이 유력하다.

지난 1993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문한 양준혁은 입단 첫 해부터 지난 2001년까지 역대 최다인 9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최고의 교타자 명성을 얻었고 지난 해 은퇴한 장종훈(한화 2군 코치)의 공격 부문 통산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야구사를 새롭게 써왔다.

송진우도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통산 부문 신기록을 행진을 계속하며 한국 프로야구를 살찌웠다.

지난 8월29일 KIA전에서 '꿈의 통산 200승' 고지를 밟는 등 올 시즌 8승으로 강철 어깨를 뽐내며 최다승 행진을 201승으로 늘렸다. 올 시즌 삼성전에는 지난 8월5일 한 경기에 등판,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솎아냈지만 6안타로 4실점하고 패전 투수가 된 악연이 있다.

당시 경기 때 맞대결을 벌인 양준혁에게는 홈런 한 방을 맞았으나 삼진 1개를 솎아내며 병살타를 유도해 3타수 1안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팀의 공격과 마운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베테랑 대결에서 누가 웃을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사회생 메츠 "막판 가자" 카디널스와 3승3패

벼랑에 몰렸던 뉴욕 메츠가 기사회생,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승부를 최종 7차전으로 몰고 갔다.

메츠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뉴욕 셰이스타디움에서 벌어진 NLCS 6차전에서 선발 존 메인의 눈부신 호투와 호세 레예스의 선제 홈런 등 장단 10안타를 효과적으로 적중시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2로 물리치고 시리즈 전적 3승3패를 마크했다.

이로써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내셔널리그 챔피언은 20일 오전 9시20분 셰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7차전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4이닝 동안 볼넷 5개를 남발하며 4실점(3자책점)하며 조기 강판했던 메츠 선발 메인은 이날 5.1이닝 동안 안타를 단 2개만 맞고 고비마다 삼진을 5개나 솎아내며 무실점으로 역투,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첫 승을 신고했다.

양팀은 올리버 페레스(메츠), 제프 수판(세인트루이스)을 7차전 선발로 내세워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첼시 드로그바 결승골 바르셀로나 1-0 제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최강 첼시가 '별들의 전쟁'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챔피언 FC 바르셀로나를 제압했다.

프리미어리그 2회 연속 우승팀 첼시는 1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32강) A조 3차전에서 후반 2분 터진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로그바의 결승골로 바르셀로나를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3연승으로 조 1위를 지킨 첼시는 16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또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과 스페인 강호 발렌시아도 3연승으로 순항을 이어갔다.

뮌헨은 원정경기로 치른 스포르팅(포르투갈)과 B조 3차전에서 전반 19분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의 25m짜리 중거리포로 1-0으로 이겨 3승으로 조 선두를 굳게 지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팬과 우정한마당 KIA, 명칭 공모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지난해 실시했던 '팬과 KIA 타이거즈 우정한마당(가칭)' 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2일까지며 KIA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명칭은 팬과 KIA구단이 함께 2006 시즌을 되돌아 보는 축제의 장을 표현해 내면 된다.

금상 1명에게는 19인치 LCD모니터를, 은상 2명에겐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을, 동상 3명에겐 타이거즈 유니폼을 증정한다.

또 응모자 중 5명을 뽑아 참가 상품으로 타이거즈 쿠션을 선물로 보내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무등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려한 마루운동 연기 18일(현지시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벌어진 제39회 세계 기계체조 챔피언쉽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의 팡 판판이 마루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현대-알 카라마 AFC 챔프 가린다

전북 현대가 시리아의 알 카라마와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다투게 됐다.

2005~2006 시즌 시리아 리그 우승팀 알 카라마는 19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열린 알 카디시야(쿠웨이트)와 대회 4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15분 터진 미드필더 아테프 제냐트의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 1-0으로 승리, 대회 결승에 올랐다.

전날 울산 현대를 4-1로 대파하고 결승에 선착한 전북은 다음 달 1일 먼저 알 카라마를 홈으로 불러들여 1차전을 갖고, 현지 시간 8일 2차전을 벌여 우승컵의 주인을 가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 한국 대표팀 25명 확정

28일 개막되는 여자축구 국가대항전 '2006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이하 피스퀸컵)'에 출전할 한국 대표팀이 확정됐다.

피스퀸컵 조직위원회는 "안종관 감독을 사령탑으로 하는 한국 대표팀 선수 25명의 명단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표팀은 실업팀에서 활약 중인 고참급 선수와 고교생 신예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25명 가운데 고교 및 대학 선수가 9명이나 된다.

한국은 28일 브라질과 개막전을 시작으로 30일 캐나다, 다음달 1일 이탈리아 등과 조별리그 A조 예선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20일(금)

▲메이저리그 NL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세인트루이스-뉴욕M〉(09 : 10·Xports)

▲제87회 전국체육대회(13 : 00·KBS1)

▲코리안 투어 LIG컵 KPGA선수권 대회 2R(14 : 10·KBC)

▲프로농구〈오리온스-전자랜드〉(18 : 50·Xports, SBS스포츠)

21일(토)

▲PGA투어 후나이 클래식 2R(04 : 00·SBS스포츠)